

SBM

Self Bible Meditation for Maturity

골로새서

COL · 서신서 · 헬라어

관찰 핵심 정리 · 완성 4장 · 네다바웨이 Observatory

골로새서 1장

COL-001 · 서신서 · 헬라어

그리스도 찬가의 심장 —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eikon),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으며, 교회의 머리(kephale)로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화목(apokatallasso)케 하신다. 바울의 힘을 다한 수고가 그 복음의 일꾼 됨을 비춘다.

관찰된 사실

골로새서 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장르: 서신·감사·기도·찬가·사도 선언.
- 무대 두 층: 서신(1-14절) / 찬가와 사도직(15-29절).
- 소품: 흑암(13절)·아들의 나라(13절)·십자가의 피(20절)·몸(18절·22절)·신비(mysterion, 26-27절).
- 반복 소재: "그 안에"(16-17절 반복)·"만물"(16-17절 세 번 이상).
- 인물: 바울·디모데·골로새 성도·에바브라·하나님·그리스도·성령.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5-20절 찬가에서 선언이 연속으로 쏟아지는 느낌 — 무게감이 달라짐.
- 13절 "건져내사 옮기셨으니" — 이미 완료된 이동의 이미지.
- 29절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 수고가 강조된 결말.
- 전반부(기도)와 후반부(찬가·수고)의 분위기 전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
- 29절: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 사도의 신분 선언에서 사도직의 수고 선언으로.
- 그 사이에 그리스도 찬가가 수고의 근거로 놓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디모데·골로새 성도·에바브라·하나님·그리스도·성령.
- 상황: 기도(9-14) → 그리스도 찬가(15-20) → 화목 적용(21-23) → 사도직·신비(24-29).
- 사상 핵 — eikon(형상)·prototokos(먼저 나신 이)·kephale(머리)·apokatallasso(화목)·mysterion(신비, 27절).
- 두 prototokos: 창조(15절)·부활(18절) — 두 영역의 우선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절): 인사 — 바울·디모데·골로새 성도.

- 컷 2 (3-14절): 감사·기도 — 에바브라·채워지길·흑암→아들의 나라.
- 컷 3 (15-20절): 그리스도 찬가 — eikon·prototokos·pleroma·kephale·apokatallasso.
- 컷 4 (21-23절): 화목의 적용 — 골로새 교인들의 화목.
- 컷 5 (24-29절): 바울의 사도직 — mysterion·힘을 다한 수고.

6 — (1) 원어 카드

- eikon(εἰκών) — 형상·보이지 않는 것의 가시적 표현. 15절.
- prototokos(πρωτότοκος) — 먼저 나신 이·장자권·우선권. 15절·18절.
- pleroma(πλήρωμα) — 충만. 19절.
- kephale(κεφαλή) — 머리. 18절.
- apokatallasso(ἀποκαταλλάσσω) — 완전히 화목케 하다·원상 회복. 20절·22절.
- mysterion(μυστήριον) — 신비·비밀. 26절·27절.

6 — (2) 문학 구조

- 인사(1-2) → 감사(3-8) → 기도(9-14) → 찬가(15-20) → 적용(21-23) → 사도직(24-29).
- 찬가(15-20)가 구조의 중심이며 A-B 형식: 창조 단락(15-17) / 교회·부활 단락(18-20).
- prototokos가 15절(창조)·18절(부활)에 반복 — 수미상응.
- "그 안에"(en auto) — 16절 두 번·17절·19절 반복.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16절의 "왕권·주권·통치자·권세"(thronoi, kyriotetes, archai, exousiai) — 유대 묵시 문학과 헬레니즘 우주론 배경으로만.
- apokatallasso는 katallasso(화목)의 강화형 — 배경으로만.
-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창설자로 소개(7절) — 배경으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골 1:15 ↔ 고후 4:4 (eikon 병행)
- 골 1:15-20 ↔ 요 1:1-14 (창조에서의 그리스도 선언)
- 골 1:20 ↔ 엡 2:16 (apokatallasso 병행)
- 골 1:27 ↔ 골 2:2 (mysterion — 신비·확신)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바울이 사도로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인사하며,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게 됐다고 감사한다. 기도로 넘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길,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기를 빈다. 13절 —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리스도 찬가가 터진다 —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eikon,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prototokos이며, 만물이 그 안에 창조됐고 그를 위해 창조됐으며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교회의 kephale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이며, 아버지의 pleroma가 그 안에 거하게 하셨다. 십자가의 피로 apokatallasso — 만물이 그로 화목케 됐다. 화목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직접 적용된다 — 전에는 마음에 원수였으나 이제는 흠 없이 거룩하게 세우신다.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으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

어졌던 신비(mysterion) —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나타났다. 이 신비를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그리스도 찬가 —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만물의 으뜸"
- 초벌 부제: "흑암에서 아들의 나라로,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화목케 하시는 머리"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6개 기록: eikon·prototokos·pleroma·kephale·apokatallasso·mysterion)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왕권·주권·통치자·권세 배경, 에바브라 소개)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예정)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pleroma의 구체적 내용을 단정하지 않도록 → "충만"이라는 뉘앙스만 보존.
- 24절 "그리스도의 고난의 남은 것"을 신학적으로 확정하지 않도록 → 미해결 질문으로.
- 16절 "왕권·주권·통치자·권세"의 정체를 단정하지 않도록 → 배경 자료로만.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골로새서 1장은 감사와 기도로 열어 그리스도 찬가(15-20절)에서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eikon이자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며 교회의 kephale로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apokatallasso 화목케 하셨음을 선언하고, 그 화목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적용되며, 바울이 그 신비(mysterion)의 일꾼으로 힘을 다해 수고함을 선언하며 닫히는 장이다.

한 문단: 바울이 사도로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인사하며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의 열매에 감사한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길,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기를 빈다. 13절 —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다. 그리스도 찬가가 터진다 —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eikon이며 prototokos(먼저 나신 이)로 만물이 그 안에 창조됐고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교회의 kephale 이고 아버지의 pleroma가 그 안에 거하며 십자가의 피로 apokatallasso — 만물이 화목케 됐다. 이 화목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직접 적용된다. 바울은 신비(mysterion) —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을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장르: 서신·찬가. 소품: 흑암·아들의 나라·피·몸·신비. "그 안에"."만물" 반복.
2 첫 느낌·분위기	15-20절 찬가의 선언 쏟아짐. 13절 이미 완료된 이동. 29절 힘을 다한 수고.
3 시작과 끝	시작: 사도 바울의 인사(1절). 끝: 힘을 다한 수고(29절). 찬가가 수고의 근거.
4 등장인물·상황·사상	인물: 바울·에바브라·골로새 성도·하나님·그리스도. 사상 핵: eikon·prototokos·kephale·apokatallasso·mysterion.
5 장면 컷	컷1 인사(1-2), 컷2 감사·기도(3-14), 컷3 찬가(15-20), 컷4 화목 적용(21-23), 컷5 사도직(24-29).
6 의문·발견·정보	13절 과거 완료 이동. 두 prototokos(창조·부활). 24절 고난 남은 것 미해결. pleroma 미확정.
7 동영상	인사·감사·기도→흑암→아들의 나라→찬가(eikon·prototokos·kephale·apokatallasso)→적용→mysterion·수고.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그리스도 찬가 —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부제: "흑암에서 아들의 나라로, 만물을 화목케 하시는 머리".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17절) 앞에 섬.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림.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두 prototokos:** 15절(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과 18절(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 같은 단어가 창조와 부활 두 영역을 덮는다. 그리스도의 으뜸 됨이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선언이다.
- 결 2 — "그 안에" 반복:** 16절 두 번, 17절, 19절 — "en auto"(그 안에)의 반복이 찬가의 박자를 만든다. 만물의 창조, 만물의 유지, 충만의 거하심이 모두 "그 안에"로 묶인다.
- 결 3 — 신비(mysterion)의 공개:** 26-27절 —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나타났다. 그 내용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다. 우주적 선언이 개인의 안으로 수렴된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골 1:19 ↔ 골 2:9 (pleroma·충만의 심화), 골 1:27 ↔ 골 2:2 (mysterion·신비·확신의 연결).
- 다른 권 — 요 1:1-14 (창조 중재자로서의 그리스도), 엡 1:22-23 (교회의 머리·몸의 충만).

- 골로새서 흐름 — 1장의 찬가가 2장("철학에 속지 말라"·"신성의 충만이 그 안에")의 신학적 토대를 세운다.

E·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골로새 성도처럼 에바브라로부터 복음을 들은 자리에 앉는다.
- **멈춤 1:**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13절) — 이미 완료된 이동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찬가(15-20절) —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만물 안에, 교회의 머리, 십자가의 피로 화목케 하시는 분이라는 선언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27절) — 우주적 신비가 내 안에 수렴되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는 바울의 수고 앞에 자신의 자리를 묻는다.

F·자족성 점검

- [x]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eikon이자 prototokos로 창조와 교회·부활 두 영역의 으뜸이심
- [x] 만물이 그 안에 창조되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으며 그 안에 함께 서 있음
- [x] 교회의 머리(kephale)이자 pleroma가 거하시는 분으로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화목(apokatallasso)케 하심
- [x] 화목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직접 적용됨 — 흠 없이 거룩하게 세우심
- [x] 신비(mysterion) —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 가 나타났으며 바울이 이를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함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골로새서의 spine은 "헛된 철학·규례를 넘어, 만물의 으뜸·충만이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려 위의 것을 찾게 하신다"이다. 1장은 그 spine의 첫 번째 국면 — 그리스도 찬가(으뜸·머리·화목)가 선포되는 자리다. 이 찬가는 COL 전체의 신학적 기초를 놓는다. 즉, 어떤 철학이나 규례도 "넘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우주적 으뜸 됨을 1장에서 먼저 세운다. 2장의 "그 안에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심"과 3장의 "위의 것을 찾으라"는 모두 1장의 찬가가 세운 그리스도론 위에서만 가능한 요청이다. 구속사 호에서 보면, 이 찬가는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 선언과 함께 창조·성육신·화목의 구속사 전체를 한 인격 안에 압축한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흑암의 권세(13절) → 사랑의 아들의 나라(13절) / 만물보다 먼저·만물 안에(prototokos·창조) → 교회의 머리·죽은 자 가운데 먼저(kephale·부활) /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거리감 → mysterion·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한 화살표로 좁히면, 1장은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심을 우주적 폭으로 선언하며, 그 선언이 골로새 교인 개인 안에 수렴되는 신비로 완성되는 운동이다. COL 흐름에서 이 장은 2장의 "철학에 속지 말라"와 3장의 "위의 것을 찾으라"가 근거로 삼는 토대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바울의 기도와 서신의 감사, 그리고 신학적 찬가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형상이며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을 두시고, 그분

으로 만물을 화목케 하여 어떤 철학·규례도 넘보지 못할 머리 아래 교회를 세우시려는 의중이다. 그 심정은 29절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에 가장 선명하게 비친다 — COL의 심정(1:29)인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힘을 다한 애씀"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간절함(2:2의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는")으로 흐른다. 수면 아래에서, 이 장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우주적 의중이 한 교회를 위한 기도와 수고로 좁혀지는 장이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만물을 화목케 하신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27절)로 내 안에 수렴되어 있는가 — 이 신비(mysterion)가 나의 수고의 근거인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1장은 독자를 우주적 찬가(15-20절)와 개인적 신비(27절) 사이에 세우고, 그 신비가 내 안에서 살아 있는지를 묻게 한다. COL 흐름에서 이 불씨는, 2장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경고의 근거가 된다 —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충만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무엇도 그분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진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pleroma(충만).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1장이 선언한 pleroma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심"(2:9)으로 심화되며, 그 충만 안에서 철학·규례가 힘을 잃는다는 2장으로.

미해결 질문

골로새서 1장 — 미해결 질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Q1. 15절 prototokos(먼저 나신 이)는 창조 전에 나셨다는 것인가, 창조에서의 우선권을 말하는 것인가?

-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표현의 정확한 결이 본문 자체로 확정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2. 19절 pleroma(충만)는 무엇의 충만인가?

-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에서 충만의 내용이 이 절에서 더 설명되지 않음.
- 2:9와의 관계는 묵상으로 이월.

Q3. 24절 "그리스도의 고난의 남은 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무엇인가?

-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결인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 관찰로는 보류.

Q4. 16절의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은 무엇인가?

- 천사적 존재인지 정치적 권세인지 본문이 확정하지 않음.
- 배경 자료만 두고 미해결로 머문다.

Q5.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 옮기셨으니"(13절)는 언제 일어난 일인가?

- 이미 완료된 사건으로 표현되는데, 그 시점이 명시되지 않음.

- 묵상으로 이월.

Q6. "에바브라"(7절)는 어떻게 골로새에 복음을 전하게 됐는가?

- 본문이 에바브라의 배경을 더 설명하지 않음.
- 관찰로는 "신실한 일꾼"이라는 사실만 보존하고 미해결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골로새서 2장

COL-002 · 서신서 · 헬라어

신성의 모든 충만(pleroma)이 그 안에 육체로 거하시니 —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림자(skia)와 실체(soma).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와 세례와 십자가가 함께 임하는 장이다.

관찰된 사실

골로새서 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장르: 서신·논증·경고.
- 무대: 바울이 얼굴을 보지 못한 라오디게아·골로새 청중.
- 소품: 비밀(mysterion, 2절)·보화(3절)·철학(philosophia, 8절)·세상 초등 원리(stoicheia tou kosmou, 8·20절)·할례(peritome, 11절)·규례(dogma, 14·20절)·그림자(skia, 17절)·실체(soma, 17절)·천사 숭배(18절).
- 반복 소재: "그 안에"(3·6·7·9·10·11·12절 반복).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9절 —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의 선언 무게.
- 세 번의 경고 반복(8·16·18절).
- 17절 그림자·실체 대비의 선명함.
- 1절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한 수고 고백.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 23절: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 수고의 고백에서 규례의 무익함 선언으로.
- 수고의 목적 —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풍성한 확신에 이르게"(2절).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골로새 교인·라오디게아 교인·그리스도·하나님·천사(18절 소재).
- 상황: 수고(1-5) → 뿌리 내리라(6-7) → philosophia 경고(8) → pleroma 선언(9-10) → 할례·세례·십자가(11-15) → skia·soma(16-17) → 천사 숭배(18-19) → stoicheia(20-23).
- 사상 핵 — 9-10절: 신성의 pleroma가 그 안에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음. 그는 모든 통치자·권세의 머리.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절): 수고와 간청 — 확신에 이르게 하려 함.

- 컷 2 (6-7절): 뿌리 내리라 —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박으라.
- 컷 3 (8-15절): 충만 선언 — philosophia 경고·pleroma·할레·세레·십자가·dogma 무효화.
- 컷 4 (16-19절): 그림자·실체 — skia vs soma·절기·천사 숭배 경고.
- 컷 5 (20-23절): 세상 초등 원리 경고 —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규례 아래 살지 말라.

6 — (1) 원어 카드

- pleroma(πλήρωμα) — 충만. 9절·10절.
- theotes(θεότης) — 신성·신의 본질. 9절.
- philosophia(φιλοσοφία) — 철학·지식 사랑. 8절.
- stoicheia tou kosmou(στοιχεῖα τοῦ κόσμου) — 세상의 초등 원리. 8절·20절.
- skia(σκιά) — 그림자. 17절.
- soma(σῶμα) — 몸·실체. 17절.
- dogma(δόγμα) — 규례·법적 채무 증서 뉘앙스. 14절·20절.

6 — (2) 문학 구조

- 수고(1-5) → 긍정 권면(6-7) → 부정 경고 1(8-15) → 부정 경고 2(16-19) → 부정 경고 3(20-23).
- 핵심 선언(9-10절)이 세 경고의 공통 근거.
- "그 안에" 반복 — 3·6·7·9·10·11·12절에서 반복.
- 17절 그림자·실체 대비 — 구약의 의식적 규례를 그림자로, 그리스도를 실체로 연결.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 deigmatizo, 로마 개선 행진의 포로 전시 이미지 배경으로만.
- 2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풍성한 확신" — mysterion·epignosis 연결, 배경으로만.
- 14절 "규례 증서"(dogma) — 고대 채무 증서 형식 배경으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골 2:9 ↔ 골 1:19 (pleroma 반복·심화)
- 골 2:8 ↔ 갈 4:3·9 (stoicheia 병행)
- 골 2:17 ↔ 히 10:1 (그림자·실체 병행)
- 골 2:12 ↔ 롬 6:4 (세레·죽음·부활 병행)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바울이 얼굴을 보지 못한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사람들을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고백한다. 목적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풍성한 확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박으라"고 권면한다. 첫 번째 경고 —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 초등 원리를 따른다. 왜냐하면 —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고,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할레·세레·부활이 연결된다. 우리를 거스르는 규례 증서(dogma)가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졌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력화됐다. 두 번째 경고 — 절기·안식일에 대해 비판받지 말라. 이것들은 그림자(skia)이고 실체(soma)는 그리스도이다. 세 번째 경고 — 천사 숭배와 겸손한 모양으로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자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왜 세상 규례 아래 사느냐. 겉으로
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육체를 이기는 데 아무 유익이 없다는 선언으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신성의 모든 충만 — 그림자가 아닌 실체"
- 초벌 부제: "그 안에 pleroma가 거하시니 철학·규례·그림자는 그분을 대신할 수 없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pleroma·theotes·philosophia·stoicheia·skia·soma·dogma)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deigmatizo 개선 행진 이미지·dogma 채무 증서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예정)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9절 "신성의 모든 충만"의 신학적 의미를 단정하지 않도록 → pleroma 원어로만.
- 18절 "천사 숭배"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지 않도록 → 미해결 질문으로.
- 17절 그림자·실체 대비를 해석적 교리로 굳히지 않도록 → 본문의 표현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골로새서 2장은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한 수고 고백으로 열어,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9-10절)를 핵심 근거로 세우고, 철학·할례·규례·음식 절기·천사 숭배·금욕이 모두 그림자(skia)이거나 실체(soma)를 대신할 수 없음을 논증하며 닫히는 장이다.

한 문단: 바울이 얼굴을 보지 못한 라오디게아·골로새 사람들을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하며, 목적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풍성한 확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6-7절). 첫 경고 —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라: 왜냐하면 그 안에 신성의 모든 pleroma가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기 때문이다. 할례·세례·부활이 연결되고, 우리를 거스르는 규례 증서(dogma)가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졌다. 두 번째 경고 — 절기·안식일에 비판받지 말라: 이것들은 그림자(skia)이고 실체(soma)는 그리스도이다. 세 번째 경고 — 천사 숭배와 세상 초등 원리 아래 살지 말라: 겉으로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에 아무 유익이 없다.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장르: 서신·논증·경고. 소품: mysterion·보화·philosophia·stoicheia·dogma·skia·soma·천사 숭배. "그 안에" 반복.
2 첫 느낌·분위기	9절 "신성의 모든 충만"의 무게. 세 번의 경고 반복. 그림자·실체 대비 선명.
3 시작과 끝	시작: "힘쓰는 수고"(1절). 끝: "육체에 유익이 없다"(23절). 수고의 고백에서 규례의 무익함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인물: 바울·골로새·라오디게아·그리스도. 사상 핵: 9-10절 pleroma·충만·통치자·권세의 머리.
5 장면 컷	컷1 수고(1-5), 컷2 뿌리(6-7), 컷3 충만·경고1(8-15), 컷4 그림자·경고2(16-19), 컷5 규례·경고3(20-23).
6 의문·발견·정보	deigmatizo 개선 행진 이미지. 세례 세 단계(죽음·장사·부활). 천사 숭배 미확정. dogma 채무 증서.
7 동영상	수고 고백→뿌리 내리라→pleroma 선언→경고1(철학)→경고2(그림자)→경고3(규례)→유익 없음으로 닫힘.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신성의 모든 충만 — 그림자가 아닌 실체". 부제: "pleroma가 그 안에 있으니 철학·규례는 대신할 수 없다".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그림자를 잡고 있었는지 실체를 잡고 있었는지" 묻게 됨.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림.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그 안에" 반복의 논리:** 3절(보화가 그 안에)·9절(충만이 그 안에)·10절(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이 논증의 뼈대다. "그 안에"가 반복될수록 그분 외의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논리가 강화된다.
- 결 2 — 그림자와 실체:** 17절 — 절기·안식일은 그림자(skia)이고 몸·실체(soma)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대비는 구약의 의식적 관행을 그림자로, 그리스도를 그 그림자가 가리켰던 실체로 놓는 논증이다.
- 결 3 — 세 경고의 공통 근거:** 9-10절이 철학 경고(8절)·절기 경고(16절)·천사 숭배 경고(18절) 세 가지 모두의 근거다. "이미 그 안에서 충만하다" — 이것이 세 경고를 하나로 묶는 이유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골 2:9 ↔ 골 1:19 (pleroma 반복·심화), 골 2:17 ↔ 골 1:18 (실체인 그리스도·머리의 연결).
- 다른 권 — 히 10:1 (율법의 그림자·참형상 병행), 갈 4:3·9 (stoicheia 병행).
- 골로새서 흐름 — 2장의 논증은 3장 "위의 것을 찾으라"의 근거를 준비한다 — 그림자·규례에서 눈을 돌려 위의 것을 향하라.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바울이 얼굴을 보지 못한 골로새 교인의 자리에 앉는다.
- **멈춤 1:**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9-10절) — 이미 충만하다는 선언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17절) —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것이 그림자인지 실체인지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23절) — 무엇으로 자신을 채우려 했는지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10절) 앞에 자신의 자리를 다시 잡는다.

F· 자족성 점검

- [x] 신성의 모든 충만(pleroma)이 그 안에 육체로 거하심(9절)
- [x]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며 그는 모든 통치자·권세의 머리(10절)
- [x] 우리를 거스르는 규례 증서(dogma)가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짐(14절)
- [x] 절기·안식일은 그림자(skia)이고 실체(soma)는 그리스도(17절)
- [x] 규례·금욕은 겉으로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 이기는 데 유익이 없음(23절)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COL spine의 두 번째 국면 — "철학·규례에 속지 말라(신성의 충만이 그 안에)"가 2장이 맡은 자리다. 1장이 그리스도의 우주적 으뜸 됨을 선언했다면, 2장은 그 선언을 실제 위협에 적용하는 논증 국면이다. 구속사 호에서 보면, 이 장은 옛 언약의 그림자적 관행(절기·할례·안식일)과 그리스도 안의 실체 사이의 관계를 "그림자·실체" 언어로 정리하는 전환점이다. 히브리서 10:1과 같은 이미지 구조를 공유하지만, COL은 그 논점을 철학·천사 숭배·금욕으로 확장한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학·규례·그림자(skia)·세상 초등 원리(stoicheia) → 그 안에 이미 있는 신성의 충만(pleroma)·실체(soma)·그리스도 안의 완전함.

한 화살표로 좁히면, 2장은 그림자(철학·규례·천사 숭배)에서 실체(신성의 충만·그 안에서의 완전함)로 눈을 돌리라는 운동이다. COL 흐름에서 이 장은 3장의 "위의 것을 찾으라"(3:1)는 전환점의 직접적 준비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바울의 경고와 논증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하나님이 신성의 모든 충만을 그리스도 안에 두셨으니 그 충만 밖에서 더 높은 무언가를 찾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라는 의증이다. COL의 심정(1:29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한 힘을 다한 수고"·2:2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이 2장 전체의 수고 고백(1절)과 세 경고를 관통하는 심정이다. 수면 아래에서, 이 장은 그림자를 잡고 실체를 놓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바울의 수고로 비추는 장이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서 이미 충만하여졌는데 — 나는 지금 그림자(skia)를 잡고 있는가, 실체(soma)인 그리스도를 잡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2장은 독자를 9-10절의 "그 안에서의 충만"과 17절의 "그림자·실체 대비" 사이에 세우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지를 묻게 한다. COL 흐름에서 이 불씨는, 3장의 "위의 것을 찾으라"(3:1)는 전환점으로 번져간다 — 그림자에서 눈을 돌려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는 운동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ta ano(위의 것).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2장이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잡으라"고 논증했다면, 3장은 그 실체를 향해 "위의 것을 찾으라"(3:1)는 실존적 전환을 요청한다.

미해결 질문

골로새서 2장 — 미해결 질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Q1. 8절 "세상의 초등 원리"(stoicheia tou kosmou)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철학·규례·천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본문이 하나로 확정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2. 9절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심"과 1장 19절 "모든 충만이 거하게 하시고"의 관계는 무엇인가?

- 같은 pleroma인데 2:9에서 "신성"(theotes)이 덧붙여지는 것의 결이 본문 자체로 더 설명되지 않음.
- 묵상으로 이월.

Q3. 18절 "천사 숭배"(threskeia ton angelon)는 골로새의 어떤 관행인가?

- 구체적 내용이 본문에 더 설명되지 않음.
- 관찰로는 "천사 숭배"라는 사실만 보존하고 미해결로.

Q4. 14절 "우리를 거스르는 증서"(cheirographon)는 무엇인가?

- 채무 증서 이미지인지 율법 문서인지 본문이 확정하지 않음.
- 관찰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다"는 사실만 보존.

Q5. 17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to de soma tou Christou)에서 "몸"(soma)이 그리스도의 몸인가, 실체인가?

- 그림자 대비에서 "실체"를 뜻하는 soma인지 아니면 다른 결인지 본문 자체로 확정 어려움.
- 미해결로 머문다.

Q6. 23절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 구체적으로 어떤 금욕 행위를 가리키는가?

- 절기·음식·천사 숭배와 연결되는 금욕의 구체적 내용이 본문에 더 나타나지 않음.
- 관찰로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에 유익이 없다"는 판정만 보존.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골로새서 3장

COL-003 · 서신서 · 헬라어

위의 것을 찾으라(ta ano zetete) — COL의 향방 전환점.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3:11).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 그리스도의 평강이 중재자가 되라.

관찰된 사실

골로새서 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장르: 서신·권면·윤리.
- 무대 두 층: 개인·공동체 변화(1-17절) / 가정 관계(18-25절).
- 소품: 위의 것(ta ano)·땅의 지체·옛 사람(palaaios anthropos)·새 사람(neos anthropos)·사랑(agape)·평강(eirene)·그리스도의 말씀(logos)·감사.
- 반복 소재: "그리스도"(17절까지 반복)·"주"(18-25절 반복).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절 "위의 것을 찾으라"의 방향 전환 — 명령의 힘.
- 11절 "만유시요 만유 안에"의 간결하고 절대적인 선언.
- 12-17절 덕목 목록의 나열 — 벗음과 입음의 대응.
- 18절부터 구체적 관계로 내려오는 전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 하늘을 향한 부름에서 현재 관계의 공정한 심판으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골로새 교인·아내·남편·자녀·아버지·종·상전·그리스도·하나님.
- 상황: 위의 것(1-4) → 죽이라(5-9) → 입으라(10-17) → 가정(18-25).
- 사상 핵 — 3:1 "위의 것을 찾으라"(COL destination 전환점)·3:11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14절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절): 위의 것 —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감추어진 생명.
- 컷 2 (5-11절): 죽이라/벗으라 — 음란·탐심·분노·거짓말·옛 사람·만유 안의 그리스도.
- 컷 3 (12-17절): 입으라 — 덕목 목록·사랑·평강·말씀·감사.

- 컷 4 (18-21절): 가정 1 — 아내·남편·자녀·아버지.
- 컷 5 (22-25절): 가정 2 — 종·상전·공정한 주.

6 — (1) 원어 카드

- ta ano(τὰ ἄνω) — 위의 것들·천상의 것들. 1절·2절.
- palaios anthropos(παλαιὸς ἄνθρωπος) — 옛 사람. 9절.
- neos anthropos(νέος ἄνθρωπος) — 새 사람. 10절.
- agape(ἀγάπη) — 사랑. 14절.
- syndesmos tes teleiotetos(σύνδεσμος τῆς τελειότητος) — 온전하게 매는 띠. 14절.
- eirene(εἰρήνη) — 평강. 15절.
- panta kai en pasin Christos(πάντα καὶ ἐν πᾶσιν Χριστός) —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11절.

6 — (2) 문학 구조

- "위의 것 찾으라"(1절) → "만유 안의 그리스도"(11절) — 두 선언이 전반부를 감쌌.
- 죽이라/벗으라 목록(5-9절) ↔ 입으라/하라 목록(12-17절) — 대응 구조.
- 가정 규례(18-25절) — "주께 하듯 하라"(23절)로 묶임.
- 5절과 12절의 덕목 목록 대조: 부정적(죽이라) vs 긍정적(입으라).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11절 스구디아인(Skythes) — 당시 가장 야만적 민족의 대명사로 여겨진 배경으로만.
- 15절 "주장하게 하라"(brabeuo) — 경기 심판이 중재·판결하는 이미지 배경으로만.
- 가정 규례(18-25절) — 헬레니즘 가정 질서 목록(Haustafeln) 형식 배경으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골 3:1 ↔ 골 2:12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위의 것 연결)
- 골 3:11 ↔ 갈 3:28 (유대인·헬라인·종·자유인의 구분 없음 병행)
- 골 3:14 ↔ 고전 13:13 (사랑이 가장 큰 것)
- 골 3:16 ↔ 엡 5:19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병행)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ta ano zetete) —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의 지체 — 음란·부정·사욕·악한 정욕·탐심(이것은 우상숭배)을 죽이라. 이것들로 인해 진노가 임한다. 분노·악의·비방·부끄러운 말·거짓말도 버려라. 옛 사람(palaios anthropos)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neos anthropos)을 입으라 —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는 것이다. 헬라인·유대인·할레파·무할레파·야만인·스구디아인·종·자유인의 구분이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panta kai en pasin Christos). 그러므로 긍휼·자비·겸손·온유·오래 참음을 입으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agape)을 더하라 —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좋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상전에게 하라. 기업의 상을 받으리니 — 주를 섬기는 것이다. 불의한 자는 보응을 받고 주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선언으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위의 것을 찾으라 — 새 사람, 만유 안의 그리스도"
- 초벌 부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ta_ano·palaios_anthropos·neos_anthropos·agape·eirene·syndesmos·panta_kai_en_pasin)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Skythes 배경·brabeuo 심판 이미지·Haustafeln 형식)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예정)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5절 "탐심은 우상숭배"의 의미를 단정하지 않도록 → 미해결 질문으로.
- 가정 규례(18-25절)를 문화적 맥락 없이 보편 윤리로 굳히지 않도록 → Haustafeln 배경으로만.
- 24절 "기업의 상"의 내용을 확정하지 않도록 → 미해결 질문으로.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골로새서 3장은 "위의 것을 찾으라"(ta ano zetete, 1절)로 COL의 향방 전환점을 열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삼중 구조(위의 것·죽이라/벗으라·입으라)를 통해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11절)라는 선언에 이르며, 사랑·평강·말씀의 새 공동체 삶과 가정 관계(18-25절)로 닫히는 장이다.

한 문단: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1-4절).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옛 사람을 벗으라(5-9절). 새 사람을 입으라 —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됨이며, 그 안에서 모든 인종·신분의 구분이 없고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10-11절). 공흠·겸손·사랑을 입으라 —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12-17절). 가정에서도 아내·남편·자녀·종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께 하듯 행하라(18-25절).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장르: 서신·권면·윤리. 소품: ta ano·옛 사람·새 사람·agape·eirene·logos·감사. "그리스도"."주" 반복.
2 첫 느낌·분위기	1절의 방향 전환 명령. 11절의 절대적 선언. 12-17절 덕목 목록. 18절부터 구체적 관계.
3 시작과 끝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1절). 끝: "주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25절). 하늘 부름에서 땅의 공정함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인물: 바울·골로새 교인·가정. 사상 핵: 3:1 위의 것·3:11 만유 안의 그리스도·14절 사랑의 띠.
5 장면 컷	컷1 위의 것(1-4), 컷2 죽이라/벗으라(5-11), 컷3 입으라(12-17), 컷4 가정1(18-21), 컷5 가정2(22-25).
6 의문·발견·정보	brabeuo 심판 이미지. Haustafeln 형식. 탐심=우상숭배 미해결. syndesmos teleiotetos 덕목 결합.
7 동영상	위의 것 찾으라→죽이라→벗으라→새 사람·만유 안의 그리스도→사랑·평강·말씀→가정 관계·공정한 주.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위의 것을 찾으라 — 새 사람, 만유 안의 그리스도". 부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묻게 됨.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림.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삼중 구조:** "위의 것을 찾으라"(1절) → "죽이라/벗으라"(5-9절) → "입으라"(12-17절). 이 세 컷이 COL 3장 전반부의 논리적 뼈대다. 위의 방향이 주어지고(1절), 옛 것을 버리고(5-9절), 새 것을 취한다(12-17절).

2. **결 2 — 두 선언:** "위의 것을 찾으라"(3:1)와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3:11)가 이 장의 두 기둥이다. COL의 향방(destination)이 이 두 선언에 압축되어 있다.

3. **결 3 — 사랑의 띠**: 14절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syndesmos tes teleiotetos). 모든 덕목을 나열한 뒤 사랑만이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한다. 사랑이 덕목 목록의 최종 결합점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골 3:1 ↔ 골 2:12**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골 3:11 ↔ 골 1:15-17** (만유의 으뜸·창조·만유 안에).
- 다른 권 — **갈 3:28** (유대인·헬라인·종·자유인 구분 없음 병행), **고전 13장** (사랑의 묘사와 병행).
- 골로새서 흐름 — 3장이 COL destination 전환점이며, 3:18~4장의 가정·기도·문안 국면으로 이어진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의 자리에 앉는다.
- **멈춤 1**: "위의 것을 찾으라"(1절) — 지금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11절) — 모든 구분이 사라지는 선언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14절) — 내 관계들이 사랑으로 묶여 있는지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17절)라는 말을 손에 쥐고 가정과 삶으로 돌아간다.

F · 자속성 점검

- [x] "위의 것을 찾으라"(3:1) — COL의 향방 전환점
- [x]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됨
- [x]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3:11)
- [x]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함·말씀이 풍성히 거함
- [x] 가정 관계(18-25절) — 아내·남편·자녀·아버지·종·상전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COL spine의 세 번째 국면 — "**위의 것을 찾으라·새 사람**"이 3장이 맡은 자리다. COL destination(향방)인 "위의 것을 찾으라"(3:1)와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3:11)가 이 장에 함께 있다. 이 장은 1-2장의 신학(그리스도의 우주적 으뜸 됨·신성의 충만)이 삶으로 전환되는 전환점이다. 구속사 호에서 보면, 이 장은 옛 질서(옛 사람)에서 새 질서(새 사람, 그리스도 안의 충만)로의 이행을 개인·공동체·가정 차원에서 구체화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땅의 것·옛 사람(palaaios anthropos) → 위의 것(ta ano)·새 사람(neos anthropos) / 분열·구분(헬라인·유대인·종·자유인) → 만유 안의 그리스도(panta kai en pasin Christos) / 개인 덕목의 나열 → 사랑의 띠(syndesmos tes teleiotetos)로 완전히 묶인 공동체.

한 화살표로 좁히면, 3장은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땅의 것에서 위의 것으로, 개인 덕목의 나열에서 사랑으로 묶인 공동체로 미치는 운동이다. COL 흐름에서 이 장은 COL의 향방이 열리는 전환점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바울의 윤리적 권면 목록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하나님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충만케 하려 하신 의중이 이제 새 사람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다**. 11절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는 1장 찬가(만물이 그 안에 창조됨)의 메아리다 — 창조에서 선언된 것이 새 사람의 삶에서 실현된다. COL의 심정("보지 못한 자들을 위한 힘을 다한 수고")이 가정 관계까지 내려가 "주께 하듯 하라"(23절)는 구체적 삶으로 드러난다. 수면 아래에서, 이 장은 만물의 으뜸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가장 작은 관계(종과 상전) 안에까지 미치는 것을 비추는 장이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위의 것을 찾으라 — 그 방향이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직 땅의 지체가 살아 있는 옛 사람의 자리에서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3장은 독자를 3:1의 "위의 것을 찾으라"와 3:11의 "만유 안의 그리스도" 사이에 세우고, 그 방향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지를 묻게 한다. COL 흐름에서 이 불씨는, 4장의 기도·깨어 있음·외인에 대한 지혜로운 삶으로 번져간다 — 위의 것을 찾는 삶이 기도와 관계 안에서 구체화되는 4장으로.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proskartereo(깨어 있어 항상 간구함).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3장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방향을 열었다면, 4장은 그 방향이 기도·외인과의 관계·문안 안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인다.

미해결 질문

골로새서 3장 — 미해결 질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Q1. 3절 "너희가 죽었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 2:12의 세례와 연결되는지, 다른 결인지 본문 자체가 더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2. 5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는 왜인가?

- 탐심과 우상숭배의 연결 논리가 본문에서 설명되지 않음.
- 묵상으로 이월.

Q3.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가?

- 종말론적 나타나심인지, 다른 결인지 본문이 확정하지 않음.
- 관찰로는 "나타나심·영광"이라는 사실만 보존.

Q4. 14절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에서 사랑이 다른 덕목들과 어떻게 다른가?

- 사랑만 "띠"로 묘사되는 이유가 본문에 더 설명되지 않음.
- 미해결로 머문다.

Q5. 18-25절의 가정 규례는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가?

- 헬레니즘 Haustafeln 형식과의 관계가 본문 자체로 확정되지 않음.
- 관찰로는 구조·내용만 보존하고 배경은 미해결로.

Q6. 24절 "주께로부터 기업의 상을 받으리라"에서 기업의 상은 무엇인가?

- 앞서 2:12의 부활 소망과 연결될 수 있지만 본문이 더 설명하지 않음.
- 묵상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골로새서 4장

COL-004 · 서신서 · 헬라어

기도에 깨어 감사함으로(proskartereo) — 외인에게 지혜로 행하고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 에바브라의 씨름, 누가·디마스·오네시모의 문안 — COL spine이 구체적 관계망으로 완성되는 결말.

관찰된 사실

골로새서 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장르: 서신·권면·문안.
- 무대 두 층: 기도·외인(1-6절) / 편지 전달자·동역자 문안(7-18절).
- 소품: 기도·깨어·감사·비밀(mysterion)·소금(halas)·지혜·기회·수갑(desmios)·은혜.
- 인물 목록: 두기고·오네시모·아리스다고·마가·유스도·에바브라·누가·디마스·눔바·아킵보·바울.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2절 "기도에 proskartereo·깨어·감사"의 밀도감.
- 12절 에바브라의 agonizomai(씨름)의 강도.
- 후반부 이름 목록과 각 이름에 붙은 짧은 묘사.
- 18절 "수갑·은혜"의 역설적 결말.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상전들아 ...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 18절: "내 매인 것을 기억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하늘 상전을 기억하라"에서 "수갑을 기억하라·은혜"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상전들·두기고·오네시모·아리스다고·마가·유스도·에바브라·누가(iatros)·디마스·눔바·아킵보.
- 상황: 가정 규례 마무리(1절) → 기도(2-4) → 외인(5-6) → 전달자(7-9) → 문안(10-15) → 편지 교환(16) → 아킵보(17) → 서명(18).
- 사상 핵 — 2-4절 기도 권면(proskartereo·깨어·감사·신비의 문). 12절 에바브라 씨름(agonizomai·완전·확신).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절): 가정 규례 마무리 — 상전·하늘 상전.
- 컷 2 (2-6절): 기도·외인 — proskartereo·깨어·감사·신비의 문·소금.

- 컷 3 (7-15절): 동역자 문안 — 두기고·오네시모·에바브라의 씨름·누가·디마스.
- 컷 4 (16-18절): 편지 교환·서명 — 라오디게아 편지·아킵보·수갑·은혜.

6 — (1) 원어 카드

- proskartereo(προσκαρτερέω) — 힘써 매달리다·지속적으로 전념함. 2절.
- agonizomai(ἀγωνίζομαι) — 씨름하다·경기에서 싸우다. 12절 (1:29 병행).
- halas(ἄλας) — 소금. 6절.
- mysterion(μυστήριον) — 신비·비밀. 3절.
- desmios(δέσμιος) — 죄수·결박된 자. 3절·18절.
- iatros(ἰατρός) — 의원·의사. 14절 (누가).

6 — (2) 문학 구조

- 권면(1-6절) → 공동체 소개(7-15절) → 마무리(16-18절).
- 에바브라 agonizomai(12절) ↔ 바울 agonizomai(1:29) — 수미상응.
- 1절 "하늘 상전 기억" ↔ 18절 "수갑 기억" — 기억이라는 동사 반복.
- 신비(mysterion) — 1:26-27·2:2·4:3 세 곳에 걸쳐 COL 전체를 꿰는 실.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누가(iatros) — 의사·사랑을 받는 의원이라는 묘사, 누가복음·사도행전 저자와 동일 인물로 여겨지는 배경으로만.
- 오네시모 — 빌레몬서의 오네시모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 배경으로만, 확정 금지.
- 라오디게아 편지(16절) — 현재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 편지 배경으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골 4:12 ↔ 골 1:29 (agonizomai 병행 — 바울·에바브라의 씨름)
- 골 4:3 ↔ 골 1:26-27 (mysterion — 신비의 연속)
- 골 4:14 ↔ 딤후 4:11 (누가 동역자 병행)
- 골 4:9 ↔ 몬 1:10-12 (오네시모 동일 인물 가능성 배경)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상전들에게 —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 너희에게도 하늘 상전이 계신다. 기도를 proskartereo하며 깨어 감사함으로 하라. 바울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 그리스도의 신비(mysterion)의 문이 열리도록, 그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밝히 드러내게 해달라고. 외인에게는 지혜로 행하고 기회를 사라. 말을 소금(halas)으로 고르게 하여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할지 알라. 두기고 — 신실한 일꾼·동역자로 소식을 전할 것이다. 오네시모 —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로 함께 보낸다. 문안 — 아리스다고(옥에 함께 있는 자)·마가(바나바 생질, 오면 영접하라)·유스도 — 이 사람들만이 함께 역사하는 자들로 위로가 됐다. 에바브라 — 골로새의 종으로 항상 agonizomai하여 너희가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라오디게아·히에라볼리를 위해 수고함을 증언한다. 누가(사랑받는 의원·iatros)와 디마스가 문안. 라오디게아 형제·눔바와 집 교회에 문안하라.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에서도 읽게 하고 거기서 오는 편지를 읽으라. 아킵보에게 직분을 이루라 하라. 바울이 친필로 — 내 매인 것을 기억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로 단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기도에 깨어 감사함으로 — 에바브라의 씨름과 수감의 은혜"
- 초벌 부제: "신비의 문이 열리도록, 소금으로 고르게, 동역자들의 공동체"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6개 기록: proskartereo·agonizomai·halas·mysterion·desmios·iatros)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iatros 누가 의사·오네시모 빌레몬서 가능성·라오디게아 편지 배경)
- [x] 이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예정)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오네시모를 빌레몬서 오네시모와 동일시하지 않도록 → 배경 가능성으로만.
- 라오디게아 편지의 내용을 추정하지 않도록 →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라는 사실만.
- 에바브라의 씨름을 신학적 해석으로 굳히지 않도록 → agonizomai 원어와 1:29 병행 사실만.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골로새서 4장은 상전들에게 "하늘 상전을 기억하라"(1절)로 가정 규례를 마무리하고, 기도에 힘써 매달리며(proskartereo) 깨어 감사함으로 하라는 권면·신비의 문·소금의 말·외인에 대한 지혜로 이어지며, 두기고·오네시모·에바브라(agonizomai)·누가·디마스 동역자 문안을 거쳐, 수감과 은혜로 달하는 COL의 결말 장이다.

한 문단: 상전들에게 하늘 상전이 계심을 기억하라(1절). 기도를 힘써 매달리며(proskartereo) 깨어 감사하고, 바울을 위해 그리스도의 신비(mysterion)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2-4절). 외인에게는 지혜로 행하고 기회를 사고, 말을 소금(halas)으로 고르게 하라(5-6절).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편지를 가지고 간다(7-9절).

아리스다고·마가·유스도·에바브라(항상 너희를 위해 agonizomai하는 중)·누가(사랑받는 의원·iatros)·디마스가 문안한다(10-15절). 라오디게아 교회와 편지를 교환하고 아킵보에게 직분을 이루라 하라(16-17절). 바울이 친필로 — "내 매인 것을 기억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로 닫힌다(18절).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장르: 서신·권면·문안. 소품: 기도·깨어·감사·mysterion·halas·desmios·은혜. 동역자 목록.
2 첫 느낌·분위기	2절 proskartereo·깨어·감사의 밀도. 에바브라 agonizomai의 강도. 수갑·은혜 역설.
3 시작과 끝	시작: "하늘 상전 기억"(1절). 끝: "수갑 기억·은혜"(18절). "기억하라"가 수미상응.
4 등장인물·상황·사상	인물: 바울·동역자 목록·상전들. 사상 핵: 2-4절 proskartereo·신비의 문·12절 agonizomai.
5 장면 컷	컷1 가정 마무리(1절), 컷2 기도·외인(2-6), 컷3 동역자 문안(7-15), 컷4 편지·서명(16-18).
6 의문·발견·정보	agonizomai 1:29 병행 발견. iatros 누가 의사 배경. 라오디게아 편지 미해결. 오네시모 동일 인물 가능성.
7 동영상	하늘 상전→기도 proskartereo→신비의 문→소금 말→편지 전달자→에바브라 씨름→수갑·은혜로 닫힘.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기도에 깨어 감사함으로 — 에바브라의 씨름과 수갑의 은혜". 부제: "신비의 문·소금·동역자 공동체".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내 매인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 마음에 남음.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림.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agonizomai의 수미상응:** 1:29 바울의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와 4:12 에바브라의 "힘써 씨름한다" — 같은 단어가 COL의 처음과 끝을 묶는다. 바울의 수고가 공동체에 번져 에바브라의 씨름으로 메아리친다.
- 결 2 — 신비(mysterion)의 세 번 등장:** 1:26-27(신비 나타남)·2:2(신비를 아는 확신)·4:3(신비의 문이 열리도록) — mysterion이 COL 전체를 꿰는 실이다. 편지가 신비로 시작해 신비의 문을 위한 기도 요청으로 닫힌다.
- 결 3 — "기억하라"의 반복:** 1절 "하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기억하라)와 18절 "내 매인 것을 기억하라" — 이 두 기억 요청이 4장을 수미로 감싼다. 하늘과 수갑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이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골 4:12 ↔ 골 1:29 (agonizomai 수미상응), 골 4:3 ↔ 골 1:26-27·2:2 (mysterion 연속).
- 다른 권 — 빌레몬서 1:10-12 (오네시모 가능성 배경), 딤후 4:11 (누가·디마스 동역자 병행).
- 골로새서 흐름 — 4장이 COL의 마지막 국면으로, spine("헛된 철학·규례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려 위의 것을 찾게 하심")이 기도·외인과의 지혜·동역자 공동체 안에서 완성된다.

E·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하늘 상전이 계신" 것을 기억하며 하루의 관계를 시작한다.

- **멈춤 1:** "기도에 힘써 매달리며 깨어 감사함으로"(2절) — 내 기도의 온도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에바브라가 "항상 너희를 위해 씨름한다"(12절) — 나를 위해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내 매인 것을 기억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18절) — 수갑과 은혜가 한 문장에 있는 것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에바브라의 씨름과 바울의 수갑 앞에서, 자신의 기도와 관계를 손에 쥐고 일어난다.

F·자족성 점검

- [x] 기도에 proskartereo·깨어·감사함으로 하라(2절)
- [x] 그리스도의 신비(mysterion)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3절)
- [x] 외인에게 지혜로·소금(halas)으로 고르게 하라(5-6절)
- [x] 에바브라가 항상 agonizomai하여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함(12절)
- [x] "내 매인 것을 기억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18절)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COL spine의 마지막 국면 — **"가정·기도·문안"**이 3:18~4장이 맡은 자리다. 1장의 그리스도 찬가(우주적 선언)가 4장에서 수갑 맨 바울의 "은혜가 너희에게"로 좁혀진다. 구속사 호에서 보면, 이 장은 COL의 신학(만물의 으뜸·신성의 충만·위의 것을 찾으라)이 가장 구체적인 현장 — 기도·말·동역자 관계 안에서 완성됨을 보여준다. 에바브라의 씨름이 1:29 바울의 수고와 같은 단어로 울리며, 그 수고가 공동체 안에 번져 있음이 드러난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정 규례의 마무리(상전·하늘 상전 기억) → 기도에 proskartereo·신비의 문 → 외인에게 지혜로·소금 → 동역자 공동체(에바브라의 씨름) → 수갑과 은혜로 닫힘.

한 화살표로 좁히면, 4장은 COL spine의 선언이 기도·말·관계·동역자 공동체 안에서 구체화되며, 수갑 속에서 은혜로 완성되는 운동이다. 에바브라의 씨름이 1:29 바울의 수고를 메아리치며, COL 전체의 심정("보지 못한 자들을 위한 힘을 다한 애씀")이 공동체 안에 살아 있음을 확인한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서신 결말의 권면과 문안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COL의 심정(1:29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힘을 다하는 수고")이 에바브라의 씨름(4:12)으로 공동체 안에 번져 있으며, 수갑이라는 가장 제한된 상황에서도 "신비의 문이 열리도록"(3절) 기도하는 하나님의 의중이다. COL spine("헛된 철학·규례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려 위의 것을 찾게 하심")이 이 장에서 기도와 관계로 완성된다. 수면 아래에서, 이 장은 그리스도의 신비가 어떤 상황도 막을 수 없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통해 전파되는 것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을 비추는 장이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기도에 힘써 매달리며 깨어 있는가(proskartereo) — 에바브라의 씨름(agonizomai)이 내 안에서 살아가 있는가, 아니면 수갑 맨 자의 "은혜가 너희에게"라는 말이 아직 내 안에 닿지 않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4장은 독자를 에바브라의 씨름(12절)과 바울의 수갑·은혜(18절) 사이에 세우고, 그 씨름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지를 묻게 한다. COL 흐름에서 이 불씨는, 골로새서 전권이 선언한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 한 사람의 기도와 관계 안에서 완성되는가라는 물음으로 변진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agonizomai(씨름·힘을 다함).

골로새서 전권을 마치며 가져갈 한 운동: 헛된 철학·규례를 넘어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의 충만 안에 뿌리 내리고, 위의 것을 찾으며, 그 씨름이 공동체 안에 번지는 것 — 그것이 골로새서가 미는 운동이다.

미해결 질문

골로새서 4장 — 미해결 질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Q1. 2절 "기도에 깨어"(gregorountes)는 무엇을 향한 깨어 있음인가?

- "깨어"의 대상이 본문에서 더 설명되지 않음 — 유혹인지, 기회인지, 다른 결인지.
- 미해결로 보존.

Q2. 3절 "그리스도의 비밀의 문이 열리도록"에서 "문"(thura)은 무엇인가?

- 복음 전파의 기회인지, 바울의 석방인지, 다른 결인지 본문이 확정하지 않음.
- 묵상으로 이월.

Q3. 16절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는 무엇인가?

- 현재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 편지로 여겨지지만 본문이 더 설명하지 않음.
- 관찰로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편지를 교환하라"는 사실만 보존.

Q4. 9절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의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인가?

- 이름이 같고 골로새 사람이라는 점이 겹치지만 본문이 확정하지 않음.
- 관찰로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는 사실만 보존하고 미해결로.

Q5. 11절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에서 "이 사람들만"의 범위는 무엇인가?

- 아리스다고·마가·유스도만을 가리키는 것인지, 유대인 동역자들만인지 본문이 명확히 하지 않음.
- 미해결로 머문다.

Q6. 17절 아킵보가 받은 "직분"(diakonia)은 무엇인가?

- 골로새 교회에서의 역할인지, 다른 지역의 역할인지 본문이 더 설명하지 않음.
- 관찰로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루라"는 권면의 사실만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